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7일 (음력 11월 11일) 월요일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에 호남 정치지형 요동

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쟁점 등 협의 절차 주목 전략적 투표 해온 호남민 2020 총선 선택 관심 독점 · 양당 구도 사라질 전망...다당제 가시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총선 이후 호남의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호남 지역의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지역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 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예고됐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의원 정수(10% 이내 확대여부 등)·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설패율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설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일당이나 양당 구도를 보여준 호남도 다당제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분석할 결과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짐)과 정의당이 약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제주에서 국민의당이 31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했는데 당시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의원 수 300석을 기준으로, 호남·제주에서 민주당은 11석, 새누리당 3석, 국민의당 18석, 정의당 3석을 가져갔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구 의석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에는 민주당 15석, 새누리당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광영, 정의당 윤소호 원내대표.

4석, 국민의당 23석, 정의당 3석을 나눠 갖는다.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대세였던 호남은 다당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 도입에 뜻을 들인 것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계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야3당이 단식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면서 "국민의 여론으로 볼 때 국회의원의 의원수 확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제도는 다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적 투표를 해 온 호남지역은 과거처럼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조가 없어질 것이다"면서 "정개특위가 세부적인 절차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투사?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는 절대친박이 아니라 가장 친박이다"라며 "기층했던 문제가 대신 가층하러던 문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류 전 의원은 11일 KBS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 "당선사에서 나경원이 '하나로 뭉쳐겠다. 미래의 통일을 추구하겠다'라고 선언했다"며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 시절 정의롭지 못하게 제명시켰던 사람들부터 불러들이고 복당시키는 게 첫 번째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궁극어를 자처하는 그는 이날 임기 만료로 물러난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 '들개처럼 싸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애원견처럼 단식투쟁을 했던 것이기에 남는다'며 "특히 배현진씨를 들개처럼 조련하겠다고 하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의 속사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스1



류여해



나경원



홍준표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 개최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지난 14일 광주 서구 라봉웨딩홀 2층 연회장에서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호남지역 인물대상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날 시상식은 내·외빈 수상자 및 축하객 500여명이 참석해 류태환전, KBC광주방송 미디어룸 본부장, 손주은(일등방송 아나운서) 공동 사회로 1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부 시상식, 3부 송년회의 밤 행사로 치러졌다.

정승현 협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앞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과 호남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통과 융합의 메신저로서 역할로 호남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호남 발전을 이끌어 오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모든 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호남엔 반만년의 한반도 역사를 빛낸 수많은 인물이 있었다. 한국을 빛낸 예술인도 많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전남도는 새천년을 빛낼 인물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윤자 선정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자는 호남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호남인들을 발굴해 최종 선정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서은홍 기자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